

한화생명 상속연구소

THE WEALTH GUIDE

2026 Vol.5



Part.1 자산 이전

가업 승계, 3040세대의 과제가 되다



가업 승계, 3040세대의 과제가 되다

한화생명 박지빈 연구원

jibin@hanwha.com

(작성일 : 2026.3.31)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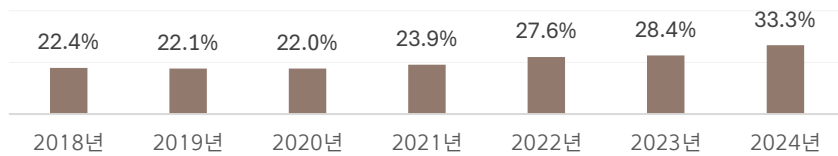
* 본 자료는 상속연구소의 HNW 인사이트 보고서 'Journey of Wealth 2025'의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

- 상속연구소 'Journey of Wealth 2025' 조사에 참여한 3040세대 자산가의 절반 가량이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 중 57%가 가업을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예정임.
- 3040세대의 약 75%가 가업 운영을 위한 본인 역량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, 6070 중 같은 응답은 절반 이하로 인식 차이가 컸음. 3040은 역량보다는 '부모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'를 가장 우려
- 3040세대는 가업 승계를 단순한 이전이 아닌, 기존에 부모세대가 일궈온 자산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.

모두의 과제가 된 ‘가업 승계’

- 국내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가 이끄는 중소기업은 '24년 기준 39만 여 개로,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전체의 3분의 1에 달함. 가업승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**이들 CEO의 자녀인 3040 세대가 지금 현실로 마주한 과제**가 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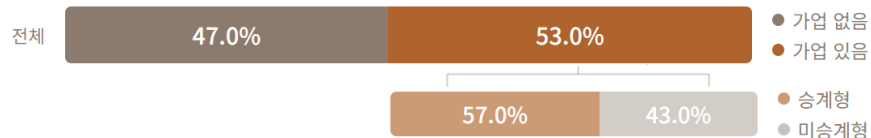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경영자 60세 이상 비율 추이 (2018~2024)



* 자료: 중소기업실태조사(중소벤처기업부, 2019~2025)

- 상속연구소가 자산가 1,000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, **3040세대 자산가의 절반 가량이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** 나타났으며, 그 중 57%가 가업을 승계 받았거나 승계 예정이었음.

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업 여부 및 승계 의향



3040세대 가업 승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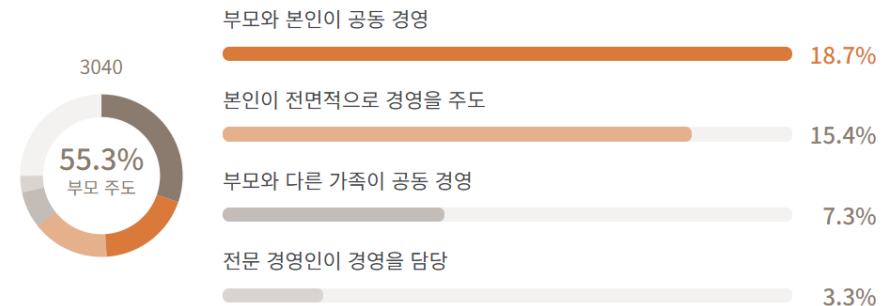
- 응답자 기업의 주요 업종은 제조업, 부동산 관리·임대업, 금융업 등으로 나타남. **절반 이상은 아직 부모가 기업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며**, 부모와 본인이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18.7%였음.

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업 업종 및 경영 현황

부모님 기업 업종



가업 경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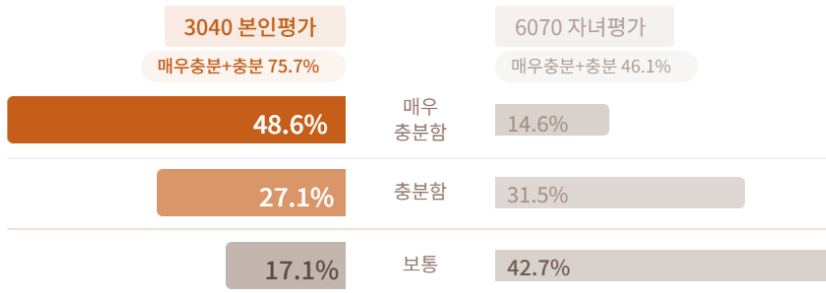


승계 받을 역량에 대한 평가 : 나는 할 수 있다 VS 아직 준비 안됐다

- 3040세대는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,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·실행 능력과 산업 전문 지식을 꼽음.
- 3040세대는 부모님의 가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 '매우 충분함'과 '충분함'을 합치면 약 75%에 이룸. 반면,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6070세대의 시각은 달랐음. 이들이 자녀의 역량을 충분하다고 보는 비율은 46%에 그침.

가업 운영을 위한 핵심 역량 및 역량 수준 평가

핵심 역량 ● 전략 수립·실행 41.4% ● 산업 전문 지식 37.1% ● 재무·세무 관리 14.3%



“저는 마흔이 다 돼 가고, 회사에서 일도 같이 하는데 부모님은 자식들 중 누가 사업을 이어갈 지 계속 재고 계산 것 같아요.” 30대 남성

승계 과정에서의 어려움 : 가장 큰 걱정은 부모 세대와의 생각 차이

- 3040세대가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역량 문제가 아닌 '부모 세대와의 경영관 차이'(40%)였음. 본인의 경영 역량·전문성 부족보다,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을 더 큰 장벽으로 여김. 임직원·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(32.9%)가 그 뒤를 이음.

승계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



“사업 방향에 대해 계속 의견을 드려도, 옛날 분들이라 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‘안 돼’가 먼저 나오는 느낌이에요.” 30대 여성

“저희 같은 2세대들은 사실 낙하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회사에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.” 30대 남성

가업 승계를 택하지 않은 이유 :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

- 한편, 3040 HNW 중 **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음**. 승계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**‘진로·경력 방향이 다르기 때문’(37.7%)**이었음. '가업의 성장 가능성·시장성 문제'(28.3%)가 뒤를 이어, 1·2위 모두 가업 자체보다 **본인의 미래 설계를 우선한 결과로 보임**.
- 가업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부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, 금융 투자소득(34.0%) 등 향후 본인만의 수입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.

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이유

이미 나의 진로와 경력이
다른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서

37.7%

- 2 가업의 성장 가능성·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28.3%
- 3 나의 적성과 체질에 맞지 않아서 26.4%

승계 미의향 만족도

45.3% 만족

- 매우 만족 24.5%
- 보통 26.4%

향후 집중 소득원

- 1 금융 투자소득 34.0%
- 2 직장 근로소득 24.5%
- 3 부동산 투자소득 18.9%

단순한 이전을 넘어 성장의 설계로

- 3040세대는 가업 승계를 단순한 이전이 아닌, 기존에 **부모세대가 일궈온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**으로 인식하고 있었음.
- 승계 과정에서 경영관 차이, 신뢰 확보, 변화 대응 등 현실적인 과제를 마주하기도 하며,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확장됨.
- 승계를 선택하든,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든 3040은 **부모 세대의 자산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어갈지 각자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는 모습**을 보임.

참고 가업 승계 지원 제도

- 상속·증여세 부담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3040 가업 후계자가 꼽은 주요 어려움임. 중소·중견기업이라면 가업자산에 대해 **가업승계 지원 제도**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사전·사후요건 충족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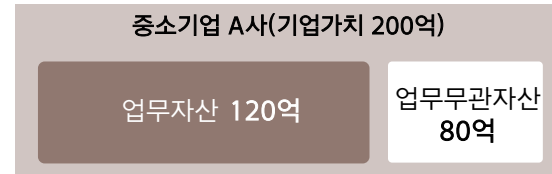
제도명	지원 혜택	주요 요건
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	가업 영위기간별 상속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 공제 • 10년 ↑ 300억 • 20년 ↑ 400억 • 30년 ↑ 600억 공제	피상속인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가업 영위, 지분 40% ↑ (상장기업 20% ↑)을 10년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※ 사후요건 충족 필요
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	최대 600억원 한도 10억 공제 후 120억까지 10% 특례세율 (120억 초과분 20% 세율)	증여자 60세 이상 부모,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가업 영위, 지분 40% ↑ (상장기업 20% ↑)을 10년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※ 사후요건 충족 필요

* 자료: 국세청,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(2025)

가업상속공제 활용 예시



자사가 김00은 조부모님이 설립하고 부모님이 경영 중인 중소기업에 이어 받으려 함. 부모님의 지분 승계 및 동생과의 재산 배분도 고려하여, 향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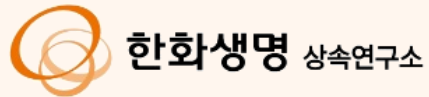


| 상속세 비교

구분	일반 상속	가업상속공제 적용
과세가액	200억	200억
(-) 공제금액	상속공제 10억*1)	상속공제 10억+가업상속공제 120억*2)
(=) 과세표준	190억	70억
적용세율	50%	50%
(=) 산출세액	95억	35억
(-) 누진공제	(4.6억)	(4.6억)
결정세액	90.4억 ← △60억	30.4억

* 1) 상속공제 10억 =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 (최소) 가정

* 2) 가업상속공제 대상액: 가업상속 공제한도 내 업무무관 자산 제외한 기업 가치



필수 안내사항

-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(주)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한화생명보험(주)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(주)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(주)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